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TF」 모두발언

2024. 8. 20.[화] 14:30~15: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카드업계,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그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카드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II. 카드산업의 현황 및 평가

신용카드업은 신용공여와 지급결제가
결합된 서비스의 제공을 특성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으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선도해왔습니다.

또한, '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적격비용에 기반한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前 수수료율 약 4.5% → '22년 0.5%
(연매출 3억~30억) '12년前 수수료율 약 3.6% → '22년 1.1~1.5%

다만, 신용카드 결제 특성 등에 따라
카드회원, 카드사, 가맹점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갈등*은 지속 되어 왔습니다.

* ('18년) 재산정 前 마트협회 농성 → 後 자동차·대형마트·통신사-카드사간 갈등
(‘21년) 재산정 前 카드노조 총파업 추진 → 後 마트협회 반발 기자회견

또한,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으로 인해
비대면·모바일·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대면서비스 중심의 규제 환경 등으로
획기적인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카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가맹점,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Ⅲ. 제도개선 방안

첫째,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제도화하고,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합니다.

*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 →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

또한,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내실화합니다.
앞으로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 시에는
가맹점에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카드사들이 일부 대형가맹점 등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하지 않도록
특수가맹점 선정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의 카드사용 편의 확대를 위해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개편하여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여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도 확대 운영합니다.

둘째,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간 다른 업권에 비해 고비용 방식을 유지하여 왔던
카드업권의 이용대금명세서의 서면교부 방식 등을
보다 전자적인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을 통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사치성 상품 카드결제 등
도덕적 해이 사례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법인회원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셋째,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카드사의 강점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 뿐 아니라,
또 다른 고객인 가맹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도 지적되었던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모색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IV. 마무리말씀

신용카드 산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 동시에,

소액후불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결제수단과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가맹점, 소비자, 카드사가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 계신 분들께서
뜻깊은 의견을 많이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